

한양대학교 2015학년도 논술전형



인문계열 (2)

성명		지원 학부·학과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유의 사항

1. 75분 안에 답안을 작성하시오.
2. 답안지는 검정색 펜(볼펜, 연필, 샤프)으로 작성하시오.
3.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를 함께 제출하시오.
4. 다음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 1) 답안지를 검정색 펜(볼펜, 연필, 샤프)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2)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기나 표현을 한 경우
  - 3) 답안을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감독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음 장으로 넘기지 마시오.

[문제] (가)에서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서술한 다음, (나)와 (다)를 활용하여 그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와 (다)를 바탕으로 그가 더욱 행복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제안하시오. (1,000자)

(가)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 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나)

1990년대 초, 심리학자 카너먼과 의사 레델마이어는 대장내시경 체험 연구를 통해 어떤 방식의 검사가 환자들이 고통을 덜 느끼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그들은 피험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A 집단에게는 고통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14분 정도에서 정점을 찍은 다음 서서히 줄어드는 방식으로 28분 동안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B 집단에게는 고통이 처음부터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8분 정도에 정점을 찍고 곧바로 끝나는 방식으로 내시경 검사를 시행했다. 그리고 양 쪽 모두 피험자들은 매 1분마다 그 순간 느끼는 고통의 정도를 0(전혀 고통 없음)에서 10(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움)까지로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험이 끝난 후 피험자들은 내시경을 받는 동안 겪었던 전반적인 고통의 정도를 보고하도록 했다.

실험 결과, 피험자들은 두 집단 모두 정점에서 느낀 고통의 강도는 비슷하게 보고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느낀 전반적인 고통의 정도는 B 집단이 A 집단보다 크게 보고되었다. 이는 내시경 검사 진행 과정에서 매 1분마다 피험자가 보고한 고통의 정도를 모두 합한 ‘총 고통량’을 비교한 것과 상치되는 결과이다. 즉 고통 경험을 기억하고 평가할 때, 피험자들은 고통의 지속 시간보다 고통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에 더 초점을 두어 고통을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카너먼은 경험 자아와 기억 자아의 구별을 도입했다. 경험 자아는 이 실험에서 매 1분마다 “지금 아픈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자아이고, 기억 자아는 실험 후 “전반적으로 어땠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자아이다. 경험 자아는 28분 동안 지속된 내시경 검사에서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었다고 보고하는 것과 달리, 기억 자아는 8분 동안 지속된 검사가 더 고통스러웠다고 기억하는 것이다.

경험 자체와 경험에 대한 기억 사이의 혼동은 우리 누구나 갖고 있는 강력한 인지적 착각이다. 우리는 지금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평범한 펜션에서 즐겁게 지낸 휴가보다 바가지요금에 소매치기까지 당했던 한여름 성수기의 로마 여행을 더 멋진 여행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이런 판단을 하게 하는 주체가 바로 기억 자아이다. 이 경우 경험 자아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기억 자아는 우리 삶의 경험 속에서 점수를 매기고, 의미를 부여하고,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매 순간을 중시하는 경험 자아라면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경험 자아의 관점에서 인생의 모든 순간은 그것이 기억할 가치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취급된다. 경험 자아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매 순간 경험하는 행복감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순간이 기억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린 시절 바이올린을 연습하며 보냈던 한 시간은 이후의 삶에서 음악을 연주하거나 감상하는 수많은 순간이 더욱 행복한 경험이 되도록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시간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두 자아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령 행복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기억 자아와 경험 자아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경험 자아가 매 순간 느끼는 행복감과 우리가 그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얻는 기억 자아의 행복 판단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

무슨 일이든 회피하고 두려워하며 어떤 자리도 지켜 내지 못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 된다. 반면 무슨 일이든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에 뛰어드는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 된다. 마찬가지로 모든 즐거움에 탐닉하면서 어떤 것도 삼가지 않는 사람은 무절제한 사람이 된다. 반면 즐거움이라면 전부 회피하는 사람은 일종의 목석같은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절제와 용기는 지나침과 모자람에 의해 파괴되고 중용에 의해 보존된다.

그렇다면 세 가지 성향이 있는 셈인데, 그 중 둘은 악덕으로, 하나는 지나침에 따른 악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자람에 따른 악덕이다. 나머지 하나가 중용이라는 탁월성의 성향이다. 이 세 성향은 모두 각기 다른 모든 성향에 대해 대립적이다. 용감한 사람은 비겁한 사람에 비해서는 무모해 보이고 무모한 사람에 비해서는 비겁해 보인다. 마찬가지로 절제 있는 사람은 목석같은 사람에 비해서는 무절제한 사람으로 보이고 무절제한 사람에 비해서는 목석같은 사람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모자람의 성향이 지나침의 성향보다 탁월성에 더 많이 대립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역으로 지나침의 성향이 모자람의 성향보다 탁월성에 더 많이 대립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용기에 더 대립하는 것은 지나침인 무모함이 아니라 모자람인 비겁이며, 절제에 더 많이 대립하는 것은 모자람인 목석같은 사람이 아니라 지나침인 무절제이다.

중용을 실천하는 진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화를 내는 일, 돈을 주거나 써버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지만,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람에게, 마땅한 만큼, 마땅한 때에, 마땅한 목적을 위해, 그리고 마땅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며, 쉬운 일도 아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이런 일을 잘하는 것은 드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며, 고귀한 일이다.

그런데 탁월성을 낳고 성장하게 하는 기원들이나 원인들은 탁월성을 파괴하는 기원들이나 원인들과 동일하다. 그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탁월성의 활동 역시 동일한 기원들이나 원인들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용기와 절제와 같은 탁월성은 그 탁월성에 도달하려는 노력에 의해 길러질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더 분명한 경우에도, 가령 체력과 같은 경우에도 맞는 말이다. 체력은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많은 운동을 견디는 일에서부터 생겨나며, 이런 일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체력이 강한 사람이다. 탁월성의 경우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우리는 먼저 즐거움을 삼가는 일을 통해 절제 있는 사람이 되며, 절제 있는 사람이 되면 즐거움을 삼가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